

##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강현주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Hyun-Joo K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yun-Joo K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i-gil, wangsang-gu, Gwangju, 62396, Korea, Tel: +82-62-950-3795, Fax: +82-62-950-3840, E-mail: HJKang@kwu.ac.kr

Received: 15 July 2016; Revised: 23 August 2016; Accepted: 25 August 2016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and Duncan post-ho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The subjects were 278 dental hygiene students in a college in Gyeongsangnam-do from June 20 to 30, 2016.

**Results:** Self-emotional appraisal  $5.13 \pm 0.94$ , Ego resilience  $2.69 \pm 0.38$ ,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3.45 \pm 0.65$  were above average. ego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dental hygiene students as a grad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dental hygiene students as a grad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main tutor in clinical practice.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that can help increa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apply such program to the curricula.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ego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색인:** 감성지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치위생과 학생

### 서론

예비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정규 대학 3, 4년제의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 1차와 2차를 통하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한다. 치위생(학)과는 전문직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치위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

임상실습교육이란 치위생학 및 치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무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형성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2]. 우수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적인 요소를 함께 겸비하여야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상실습 기간에 실제 학생들은 학교와 다른 낯선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환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4]. 또한 환자나 실습기관 직원들과의 인간관계 미숙,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때 학생들은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5].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와 연관시켜 정신적 문제뿐 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7].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이라고 최근 제시하고 있다[8]. 감성 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기감성 이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타인감성 이해뿐 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감성 활용,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조절하는 감성조절로 정의되고 있다[9].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근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10],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11].

학생 개인의 다른 내적인 특성으로는 자아탄력성이 있다. 개인이 환경 요구에 맞추어 통제수준을 조절하여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자아통제력이 핵심이다[12]. 극복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감 및 역경을 이겨내는 낙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3]. 내적특성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자기 통제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내적특성인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이에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및 대학생활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8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

한 2부를 제외한 27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85-201606-HR-001-09)을 받은 후 조사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감성지능 척도인 Wong와 Law[9], 정[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감성인식(4문항), 타인감성인식(4문항), 감성조절(4문항), 감성활용(4문항)의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이다. Liker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0.8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904이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유와 심[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0.7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826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김과 이[17]의 도구를 사용한 Liker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과 이[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890이었다.

### 3. 자료분석

분석에는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t-test,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으며, Duncan의 사후분석하였다. 감성지능과 하위요인,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가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학년’ 50.4%이었고, 임상실습 경험 기간은 ‘3개월 이상’ 54%이었고, 학업성적은 ‘3.0-3.4’ 46%로 가장 높았다. 실습지도 담당자는 ‘책임치과위생사’ 61.2%로 조사되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rade	2nd	138	49.6
	3rd	140	50.4
Clinical practice period	<2 months	39	14.0
	<2-3 months	89	32.0
	3 months ≤	150	54.0
	<3.0	56	20.1
Academic achievement	3.0 ~ 3.4	128	46.0
	3.5 ~ 3.9	86	30.9
	≥ 4.0	8	2.9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95	34.2
	Average	168	60.4
	Dissatisfaction	15	5.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73	26.3
	Average	154	55.4
	Not good	51	18.3
Activities involved	Participate	156	56.1
	Not participate	122	43.9
Number of clinic	1	44	15.8
	2	222	79.9
	3 ≤	12	4.3
Practice leader	Dentist	8	2.9
	Dental hygienist(responsible)	170	61.2
	Dental hygienist(staff)	100	36.0
Religion	Presence	75	27.0
	Absence	203	73.0
Total		278	100.0

## 2. 상관관계 분석

감성지능 및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다.

자기 감성 인식은 타인 감성 인식  $r=0.629(p<0.001)$ , 감성 활용  $r=0.489(p<0.001)$ , 감성 조절  $r=0.440(p<0.001)$ , 자아탄력성  $0.396(p<0.001)$ , 환자와의 갈등  $-0.124(p<0.01)$ 로 나타났으며, 타인 감성 인식은 감성 활용  $r=0.359(p<0.001)$ , 감성 조절  $r=0.278(p<0.001)$ , 자아탄력성  $0.343(p<0.001)$ 으로 나타났다. 감성 활용은 감성 조절  $r=0.469(p<0.001)$ , 자아탄력성  $r=0.494(p<0.001)$ 로 나타났고, 감성 조절은 자아탄력성  $r=0.473(p<0.001)$ , 부정적 역할 모델  $r=-0.129(p<0.01)$ , 대인관계갈등  $r=-0.120(p<0.01)$ 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실습교육환경  $r=-0.148(p<0.01)$ , 대인관계갈등  $r=-0.136(p<0.01)$ 으로 나타났으며, 실습교육환경은 부정적 역할 모델  $r=0.605(p<0.001)$ , 실습업무부담  $r=0.556(p<0.001)$ , 대인관계갈등  $r=0.418(p<0.001)$ , 환자와의 갈등  $r=0.360(p<0.001)$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역할 모델은 실습업무부담  $r=0.693(p<0.001)$ , 대인관계갈등  $r=0.600(p<0.001)$ , 환자와의 갈등  $r=0.387(p<0.001)$ 로 나타났으며, 실습업무부담은 대인관계갈등  $r=0.624(p<0.001)$ , 환자와의 갈등  $r=0.431(p<0.001)$ 로 나타났고, 대인

관계갈등은 환자와의 갈등  $r=0.582(p<0.001)$ 로 나타났다.

## 3. 감성지능척도와 하위요인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척도와 하위요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감성지능척도 총합에서 학업성적은 3.0미만에 비해 4.0이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5$ ),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만족( $p<0.05$ ), 실습병원 총 수 1개( $p<0.01$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자에서는 치과의사에 비해 책임치과위생사에서, 치과의사에 비해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설명력은 21.8%이었다.

자기감성인식에서는 학업성적 4.0이상( $p<0.05$ ), 전공만족도에는 만족( $p<0.05$ ), 실습병원 총 수는 1개( $p<0.01$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자에서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설명력은 17.9%이었다.

타인감성인식에서는 3학년( $p<0.05$ ), 학업성적 4.0이상( $p<0.05$ ), 전공만족도에는 만족( $p<0.05$ ), 실습병원 총 수는 1개

Table 2. The inter-construct correlations

	Mean±SD	Self-emotional appraisal	Others' emotional appraisal	Use of emotionals	Emotional control	Ego resilience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Inappropriate role models	Clinical practice burden	Interpersonal conflict	Patient conflict
Self-emotional appraisal	5.13 ±0.94	1									
Others' emotionals appraisal	4.95±0.91	0.629***	1								
Use of emotionals	4.28±0.96	0.489***	0.359***	1							
Emotional control	4.08±0.93	0.440***	0.278***	0.469***	1						
Ego resilience	2.69±0.38	0.396***	0.343***	0.494***	0.473***	1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3.45±0.65	-0.036	-0.016	-0.048	-0.082	-0.148**	1				
Inappropriate role models	3.18±0.82	-0.061	-0.019	-0.053	-0.129**	-0.115	0.605***	1			
Clinical practice burden	3.08±0.73	-0.039	-0.022	-0.048	-0.087	-0.058	0.556***	0.693***	1		
Interpersonal conflict	2.66±0.81	-0.081	-0.078	-0.115	-0.120**	-0.136**	0.418***	0.600***	0.624***	1	
Patient conflict	2.45±0.72	-0.124**	-0.075	-0.031	0.005	0.018	0.360***	0.387***	0.431***	0.582***	1

Analysed by the one-way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

\*p&lt;0.05, \*\*p&lt;0.01, \*\*\*p&lt;0.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self-emotional with ego resilience

Variables	Self-emotional Total		Self-emotional appraisal		Others'emotional appraisal		Use of emotionals		Emotional control		Ego resilience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Grade(2 = 0, 3 = 1)	0.157	0.110	0.147	0.078	0.258	0.143*	0.293	0.153*	-0.068	-0.037	0.164	0.21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2 month = 0, <2-3 month = 1)	-0.015	-0.010	-0.224	-0.111	-0.020	-0.010	0.166	0.081	0.020	0.010	-0.051	-0.063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2month = 0, 3 month $\leq$ = 1)	0.228	0.159	0.149	0.079	0.342	0.189	0.354	0.184	0.065	0.035	0.079	0.105
Academic achievement (<3.0 = 0, < 3.0-3.5 = 1)	0.075	0.052	0.109	0.058	-0.019	-0.010	0.120	0.062	0.089	0.048	0.003	0.004
Academic achievement (<3.0 = 0, < 3.5-4.0 = 1)	0.178	0.115	0.298	0.146	0.063	0.032	0.216	0.104	0.135	0.067	-0.079	-0.098
Academic achievement (3.0 > = 0, 4.0 < = 1)	0.542	0.127*	0.742	0.132*	0.694	0.128*	0.686	0.120*	0.048	0.009	-0.118	-0.053
Satisfaction of major (Good = 0, So so = 1)	-0.147	-0.101	-0.204	-0.106	-0.292	-0.158*	-0.064	-0.033	-0.028	-0.015	0.054	0.070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0, Dissatisfaction = 1)	-0.375	-0.119	-0.594	-0.143*	-0.114	-0.029	-0.571	-0.135	-0.222	-0.054	0.071	0.04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0, So so = 1)	-0.246	-0.172*	-0.108	-0.057	-0.027	-0.015	-0.463	-0.240**	-0.386	-0.207*	-0.166	-0.22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0, Dissatisfaction = 1)	-0.307	-0.167*	0.027	0.011	-0.157	-0.067	-0.503	-0.203*	-0.596	-0.248**	-0.228	-0.235**
Operating practice (Yes = 0, No = 1)	-0.059	-0.041	-0.100	-0.052	-0.128	-0.070	0.066	0.034	-0.075	-0.040	-0.108	-0.143*
The number of hospital (1 = 0, 2 = 1)	-0.354	-0.199*	-0.379	-0.161	-0.544	-0.241**	-0.280	-0.117	-0.212	-0.092	-0.142	-0.152
The number of hospital (1 = 0, 3 = 1)	-0.818	-0.233**	-1.126	-0.243**	-1.116	-0.251***	-0.665	-0.141*	-0.366	-0.080	-0.354	-0.192**
Practice Leader (Dentist t = 0, Responsible Hygienist = 1)	0.768	0.525**	0.765	0.396*	1.039	0.560**	0.173	0.088	1.095	0.575**	0.272	0.354*
Practice Leader (Dentist t = 0, Dental Hygienis t = 1)	0.807	0.543**	0.813	0.414*	1.104	0.586**	0.273	0.137	1.040	0.537**	0.329	0.422*
Religion (Presence = 0, Absence = 1)	0.137	0.085	0.154	0.073	0.074	0.037	0.221	0.102	0.097	0.047	0.026	0.030
Adjusted R <sup>2</sup>	0.218		0.179		0.194		0.173		0.109		0.176	
F	4.537(<0.001)		3.561(<0.001)		3.934(<0.001)		3.407(<0.001)		2.003(<0.05)		3.491(<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0.05, \*\* p<0.01, \*\*\* p<0.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Variables	stress in clinical practice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Inappropriate role models		clinical practice burden		Interpersonal conflict		patient conflict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Grade(2 = 0, 3 = 1)	0.176	0.150*	0.153	0.118	0.224	0.137	0.165	0.114	0.050	0.031	0.252	0.175*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2 month = 0, <2-3 month = 1)	0.163	0.130	-0.019	-0.014	0.182	0.104	0.176	0.114	0.081	0.046	0.379	0.24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2month = 0, 3 month $\leq$ = 1)	0.045	0.038	0.063	0.048	0.055	0.034	0.029	0.020	-0.072	-0.044	0.120	0.083
Academic achievement (<3.0 = 0, < 3.0-3.5 = 1)	-0.037	-0.031	0.025	0.019	-0.184	-0.113	-0.093	-0.064	-0.011	-0.007	0.101	0.070
Academic achievement (<3.0 = 0, < 3.5-4.0 = 1)	-0.182	-0.143	-0.149	-0.106	-0.226	-0.128	-0.272	-0.174*	-0.259	-0.148	-0.027	-0.018
Academic achievement (3.0> = 0, 4.0 < = 1)	-0.039	-0.011	0.383	0.099	-0.221	-0.045	-0.278	-0.064	0.158	0.033	-0.211	-0.049
Satisfaction of major (Good = 0, So so = 1)	-0.113	-0.094	-0.081	-0.061	-0.160	-0.096	-0.177	-0.120	-0.138	-0.083	-0.017	-0.011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0, Dissatisfaction = 1)	0.108	0.042	0.022	0.008	-0.098	-0.027	0.156	0.049	0.305	0.085	0.247	0.07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0, Dissatisfaction = 1)	0.287	0.242**	0.367	0.281***	0.311	0.189*	0.242	0.166*	0.323	0.198*	0.185	0.12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 0, So so = 1)	0.712	0.468***	0.778	0.464***	0.847	0.402***	0.712	0.380***	0.770	0.368***	0.437	0.236**
Operating practice (Yes = 0, No = 1)	0.042	0.036	0.103	0.079	0.031	0.019	-0.010	-0.007	0.027	0.017	0.049	0.034
The number of hospital (1 = 0, 2 = 1)	0.240	0.164	0.278	0.172***	0.276	0.136	0.056	0.031	0.470	0.233*	0.123	0.069
The number of hospital (1 = 0, 3 = 1)	0.032	0.011	0.052	0.016	-0.154	-0.038	-0.166	-0.047	0.319	0.080	0.164	0.046
Practice Leader (Dentist= 0, Responsible Hygienist = 1)	0.105	0.087	0.054	0.040	-0.033	-0.020	-0.218	-0.147	0.136	0.082	0.557	0.378*
Practice Leader (Dentist = 0, Dental Hygienist= 1)	0.085	0.069	-0.052	-0.038	0.000	0.000	-0.270	-0.179	0.183	0.109	0.529	0.354*
Religion (Presence = 0, Absence = 1)	-0.189	-0.142*	-0.273	-0.187**	-0.198	-0.107	-0.197	-0.121*	-0.150	-0.082	-0.117	-0.073
Adjusted R <sup>2</sup>	0.274		0.277		0.187		0.199		0.198		0.163	
F	6.157(<0.001)		6.265(<0.001)		3.751(<0.001)		4.040(<0.001)		4.027(<0.001)		3.176(<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p<0.01, \*\*\*p<0.001

에서( $p<0.001$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자는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설명력은 19.4%이었다.

감성활용에서는 3학년( $p<0.05$ ), 학업성적 4.0이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5$ ),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만족( $p<0.01$ ), 실습병원 총 수는 1개( $p<0.05$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7.3%이었다.

감성조절에서는 임상실습만족( $p<0.01$ ), 실습지도자에서는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설명력은 10.9%이었다.

자아탄력성에서는 3학년( $p<0.01$ ), 임상실습만족( $p<0.01$ ), 실습병원 총 수 1개( $p<0.01$ ), 실습지도자가 일반치과위생사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설명력은 17.6%이었다.

#### 4.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합에서는 3학년에서( $p<0.05$ ),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만족에서( $p<0.001$ ), 종교는 있음에서( $p<0.05$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7.4%이었다.

실습교육환경에서는 임상실습 불만족( $p<0.001$ ), 실습병원 총 수 2개( $p<0.001$ ), 종교는 있음에서( $p<0.01$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7.7%이었다.

부정적 역할 모델에서는 임상실습 불만족( $p<0.001$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8.7%이었다.

실습업무부담에서는 학업성적은 3.5-4.0미만에 비해 3.0미만( $p<0.05$ ),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불만족( $p<0.001$ ), 종교는 있음에서( $p<0.05$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9.9%이었다.

대인관계갈등에서는 임상실습 불만족에서( $p<0.001$ ), 실습병원 총 수 2개( $p<0.05$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9.8%이었다.

환자와의 갈등에서는 3학년( $p<0.05$ ), 임상실습 경험은 2-3개월 미만( $p<0.05$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불만족( $p<0.01$ ), 실습지도자는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설명력은 16.3%이었다.

###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이론수업을 임상에 적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학교 실습

실과 다른 임상실습 현장과 환경은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또한 임상실습지에서 환자와 직원 등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되어 학생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정서적 스트레스의 기능을 하여 건강악화 행동을 유발하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8]. 이러한 영향은 전공만족도나 학교생활로 이어져서 일부 학생들의 휴학, 자퇴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및 대학생활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3학년이 50.4%로 높았다. 임상실습 경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54%로 가장 높았고, 2-3개월 미만 32%, 2개월미만 14%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3.0-3.4미만이 46%로 가장 높았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60%로 가장 높았고, '만족'이 34%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에서는 76.1%로 조사된 심[19]의 연구결과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낮게 조사되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 55.4%로, 45.9%로 조사된 박[20]의 연구결과 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만족'은 26.3%로 조사되어 박[20]의 연구결과와 비교적 일치하고 긍정적 반응으로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나온 결과는 기존 실습기관들과 학과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실습 프로그램 내용의 발전이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 시 직접 수행 참여는 예가 56.1%, 아니오가 43.9%이었다.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감이나 역할이 불분명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많으나, 수행에 참여하는 학생이 56.1%로 조사되어 학생으로서 제한적이나 진료 시 참여는 긍정적 결과로 생각된다. 학생 실습을 경험한 병원의 수는 2개소가 79.9%로 가장 높았다. 실습지도자는 책임치과위생사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치과위생사 36%, 치과의사 2.9% 순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73%로 가장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은 7점 기준으로 자기 감성인식은 5.13, 타인 감성인식은 4.95, 감성 활용은 4.28, 감성 조절은 4.08로 조사되었다. 한과 김[21]의 5점 척도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5점 만점에 평균 3.33점[21]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고되었다. 자아탄력성은 4점 기준으로 2.69로 조사되었고, 자아탄력성을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보고[21]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기준으로 하위요인인 실습교육환경은 3.45, 부정적 역할모델은 3.18, 실습업무 부담은 3.08, 대인관계 갈등은 2.66, 환자와의 갈등은 2.45로 조사되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환경요인 스트레스를 3.06점, 대인관계요인을 2.39로 보고한 심과 이[22]의 연구 보다는 높았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향의 결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현장은 학교와는 다른 환경과 조직체계,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요인들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 점수로 낙관적 태도 3.25, 대인적 관계효율성 3.20, 자신감 3.10, 감정 통제 2.94로 보고[23]한 연구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낮게 조사되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감정통제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24]. 한과 김[21]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감성지능척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감성지능척도 총합에서 학업성적은 4.0 이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만족에서는 보통에 비해 만족에서, 불만족에 비해 만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실습병원의 변경 없이 한 병원에서 실습하고, 치과의사보다는 치과위생사의 지도를 받은 경우가 긍정적인 결과로 조사되었다.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 등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25]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시켜 자아탄력성을 높인다면 학업성적 또한 높일 수 있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6]. 실습병원의 변경으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치과의사보다는 치과위생사가 학생들과 의사소통, 공감면에서 유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에서는 학년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자기효능감 증가를 보고한 연구[27]와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 임상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볼 때 자아탄력성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27]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합에서는 학년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에서는 보통에 비해 만족에서, 불만족에 비해 만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27]한 결과로 스트레스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교육환경과 실습업무 부담에서는 종교가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영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종교,

신앙유무로 조사된 이[28]의 연구와 유사한 방향의 결과로 생각된다. 환자와의 갈등에서는 학년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27]한 결과로 환자와의 갈등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지도자에서는 치과의사에 비해 책임치과위생사에서, 치과의사에 비해 일반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보다는 치과위생사가 의사소통이나 공감대, 라포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많고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기관들의 규모나 내부 인력 등 환경요인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 교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및 대학생활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20부터 6월 30일까지 경상남도 소재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8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감성인식은  $5.13 \pm 0.94$ , 자아탄력성은  $2.69 \pm 0.38$ , 실습교육환경은  $3.45 \pm 0.65$ 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 감성 인식은 타인 감성 인식, 감성 활용, 감성 조절, 자아탄력성, 환자와의 갈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타인 감성 인식은 감성 활용, 감성 조절, 자아탄력성과 연관성이 있었고, 감성 활용은 감성 조절, 자아탄력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감성 조절은 자아탄력성, 부정적 역할 모델, 대인관계갈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실습교육환경, 대인관계갈등과 연관성이 있었고, 실습교육환경은 부정적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부정적 역할모델은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과 연관성이 있었고, 실습업무부담은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대인관계갈등은 환자와의 갈등과 연관성이 있었다.
2. 감성지능척도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 실습병원 1개소, 실습지도자가 치과위생사일 때, 자

아탄력성은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 실습병원 1개소, 실습지도자가 치과위생사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에는 3학년, 임상실습만족, 종교가 있을 경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실습 사전 워크샵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Acknowledgements

본 연구결과는 2016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16-050).

### References

1. Mackie JB.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education experience in two teaching process model. *Nursing Research* 1973; 22(3): 262-6.
2. Kang YG.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09; 9(1): 73-4.
3. Jeong MK, Lee JY.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6): 1241-9.
4. Kim MW. A study on the factors for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mong physical therapist students. *The Res Dept. of physical therapy, Masan University* 2003; 6: 177-96.
5. Lee YY. A study on cause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6; 40(6): 81-93.
6. Reissman DB, Orris P, Lacey R, Hartman DE. Downsizing, role demands, and job stress. *J Occup Environ Med* 1999; 41(4): 289-93.
7. Lee SY, Lee MJ, Kwon SH.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method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some area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1): 67-74.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67>
8. Im YS, Kim JH, Kwon HJ.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n workplace, burnou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Korean physician assistant nurses. *Jour of Ko Con a* 2016; 16(2): 703-13.
9. Wong CS, Law SL.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 13243-74.
10. I Nikolaou, I Tsaousis.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exploring its effects on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nt Jour Org Analy* 2002; 10: 327-42.
11. E Sener, O Demirel, K Sarlak. The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Stud Health Technol Inform* 2009; 146: 710-1.
12. Bak BG, Lee SY, Song JH.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enhancement program and testing its effects. *J Kor Edu Psychol Asso* 2010; 24(1): 61-82.
13. Kim S, Min K. Comparison of three resilience scales and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Korean J Soc Personality Psychol* 2011; 25(2): 223-43.
14. Jung EJ, Youn HJ. A study on relationship of self-control to stress-coping styl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3; 13(3): 238-45.
15. Jung HW.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Busan National, 2007.
16.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 Kor Edu Psychol Asso* 2002; 16(4): 189-206.
17.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 Soc Of Nur Ede* 2005; 11(1): 98-106.
18. Lee JH. Effect of stress and coping on body perception. *Kor J Psychol Health* 1999; 4(1): 80-93.
19. Shim HS.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s at Gwangju-Chonnam area colleges [Master's Thesis]. Gwangju: Univ. of Chosun, 2001.
20.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6; 14(4): 243-9.
21. Han JH, Kim KE.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15; 15(6): 746-52.
22. Choi MS, Jang YH, Yun HK.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2): 155-62.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55>.
23. S Folkman, JT Moskowitz.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side

-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2000; 55: 647-54.
24. Jung GO, Choi GY, Bae JY. Effect of satisfac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61-8.
  25. Yoo KH, Cho NO, Um YR.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level of coping nursing students. *J Med Coll* 1997; 3(2): 679-88.
  26.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 17(3): 267-76.
  27. Shim HS, Lee HN.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2): 155-62.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39>.
  28. Lee HI.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2; 32(1): 7-15.